

■ 그림 여행



나르시서스

(Narciso c. 1597-1599)

카라바지오 (Caravaggio 1571-1610)

(캔버스에 유채, 110 x 92 cm, 이탈리아 국립고전미술관)

나르시서스는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자신의 미모를 너무나 사랑해서 타인에게 관심 없었다. 하루 종일 연못가에 앉아 물에 비친 자기의 얼굴만 바라보다 그 자리에서 죽어 수선화 꽃이 되었다.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이다. 자기애에 도취한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이름이자 이미지이며, 화가들이 즐겨 그리는 소재이기도 하다.

여기 또 하나의 나르시서스가 있다. 이탈리아 바로크 화가 카라바지오의 그림이다. 철학같은 배경 속에

젊은 청년이 물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은 물은 투명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고요하다. 거울이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어디서 비치는지 모를 빛 속에 드러난 청년의 얼굴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옆모습은 투박하다. 깊이 패인 눈은 물속의 자신을 보고 경탄하는 것 같지 않다. 도리어 놀란 듯 보인다. 입술도 반쯤 벌어져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 음영진 얼굴은 물속에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그 다음엔 슬퍼하는 것 같다.

이 그림은 결코 자기애를 표현한 그림이 아니다. 차라리 자학의 표현이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신의 실체를 보고 경악하며 탄식하는 모습이다. 나르시서스를 어떻게 이토록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릴 수 있었을까.

재능이 뛰어났지만 사회에 적응할 수 없어 범죄자의 삶을 살다 간 천재 화가 카라바지오는 자신의 그림 속에 자화상을 그려 넣곤 했다. 스스로 그려 넣은 그의 얼굴은 언제나 침울하고 우수에 가득찬 표정이었다. 여기 나르시서스의 얼굴도 그의 자화상으로 추정된다. 거울 같은 수면 위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 겉모습을 뚫고 내면까지 비추는 듯한 검은 심연. 그 속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나.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된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었다. 오열이 터져 나올 듯하다.

어두운 정적 가운데 고도의 감성적 집중을 요구하는 한 쪽의 그림. 한없이 연민을 자아내는 심리적인 초상이며, 인간의 감정을 극대화해 표현한 바로크 미술의 걸작이다.

《김동백》

구이마을

식당내 식사 가능

참숯불 구이 • BBQ 콤보

구이마을 별미 **꼼장어**

강력추천!!! **곱창구이, 볶음**

다양한 **콤보스페셜**

구이마을 추천 **황태구이**

대창구이, 곱창구이, 막창구이, 푸꾸미찜, 아구찜

런치스페셜

714.484.9292

8535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Lic #762505

Zip(집) 쿨링·히팅

에어컨 전기 플러밍 히팅

714.293.9827
714.393.3691

Vogue Town 중고 명품 위탁 판매 www.voguetown.net

확장 이전했습니다 너츠베리팜 건너편

The Largest Brand Name Preowned Consignment Shop In Town

중고 명품 보증판매!

구경만 해도 손해는 없다

지금 가지고 계신 새것같은 고급 명품들을 팔아서 새주인을 찾아주고 현금으로도 사 드립니다. 가지고 계시는 명품 핸드백, 시계, 보석, 악세서리 등을 가져 오시면 오늘의 시가를 무료로 감정해 드립니다.

안전한 명품거래를 위한 명품지식을 원하시면 지금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의 **보그타운**에 오십시오

중고명품 교환, 매입, 판매, 다양한 품목, 100% 진품 착한 가격 보장!

내마스크 어딴지? 편리하고 다양한 마스크를 보그타운으로 오세요!

영업시간 Mon~Sat 10AM~5PM
Sunday Close

중고 명품가방, 의류
위탁판매도 해드립니다.

714.521.1030

8028 Beach Blvd. #B Buena Park, CA 90620 (2floor)